

길거리 공연으로 군민 마음 위로

순창군, 이달까지 토요일 격주로 순창읍 중앙쉼터서 문화공연 진행

순창군이 길거리 공연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에 조금씩 위로를 전해주고 있다. 토요일 저녁 7시가 되면 순창읍 중앙쉼터에서 삼삼오오 군민들이 모여든다.

도내 우수한 버스킹 공연팀이 펼치는 수준 높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다. 지난 6월부터 격주로 펼쳐지는 공연에 저녁이면 20~30명의 주민들이 공연장 주변으로 둘러앉아 공연을 감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긴장감을 간직한 채 관람객 모두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공연장을 바라본다. 중앙쉼터가 위치한 중앙로는 상권이 잘 발달되어 유동인구가 많다보니 공연장에서 퍼져나오는 음악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잠시 가던 길을 멈춰 공연을 감상한다.

공연이 펼쳐지는 중앙쉼터는 최근 지중화사업을 끝내고 도로가 말끔히 개선되면서 도시 못지 않는 멋진경관이 연출되고 있다. 야간 조명으로 도로 곳곳이 불을 밝히면서 그 멋스러움도 더해가고 있다.

버스킹 공연은 코로나19로 대규모 공연이 없어진 요즘 소소하게나마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중 하나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우천으로 인해 공연을 잠시 미룬적은 빼고는 6월부터 격주로 공연을 펼쳤으며, 9월까지 공연을 진행한다.

지난 28일에도 도내에서 활동하는 대중가수 김용찬. 어쿠스틱 듀엣 '니무항기', 순창의



순창군이 길거리 공연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에 조금씩 위로를 전해주고 있다.

'잉어밴드' 등 3팀이 90분간 공연을 책임졌다. 특히 순창의 귀농귀촌인들이 모여 만든 '잉어밴드'는 지역민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이 됐다.

이날 야외공연장을 찾은 A씨는 "공연장에 앉아 공연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19로 공연장에 가기 조심스럽다"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음악소리에 잠시 발걸음 멈추고 듣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격주로 펼쳐지는 전문공연외에도 지역 동호인단체가 펼치는 공연에도 소소한 재미를 느낀다. 전문 공연팀이 공연을 펼치는 주간에 제외하면 58여개의 지역 동호인팀의 정겨운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 전시

내년 2월 27일까지 '무형문화재와 무예, 그 특별한 만남을 담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무형문화재와 무예, 그 특별한 만남을 담다' 기획 전시를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지난 31일부터 개최한 이번 기획 전시는 2016년 전북 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된 '전북 겨루기 태권도'를 비롯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 종목인 택견과 활쏘기에 등에 관한 전시를 통해 무예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조명한다.

1950~60년대 전라북도에서 사용하던 직접 타격 중심의 겨루기 경기 기술과 규칙은 당시 국내 태권도대회에 그대로 보급되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전시물로 전라북도에서 개발한 몸통 보호구인 '대나무호구' 복원품도 이번 기획 전시에서 감상할 수 있는 등 사료적 가치를 지닌 146점의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기획 전시를 통해 태권도가 지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태권도진흥재단은 앞으로도 태권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전통무예 역사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형문화재와 무예, 그 특별



태권도진흥재단은 '무형문화재와 무예, 그 특별한 만남을 담다' 기획 전시를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한 만남을 담다' 기획 전시는 내년 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천주교 전주교구,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전' 개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 평화의 전당 준공 축복식 기념

천주교 전주교구에서는 평신도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및 평화의 전당 준공 축복식을 기념해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103위 순교 성인들의 개별 초상화를 전주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단체협의회(회장 한병성)에 따르면 9월 순교자의 성월을 맞아 '이제는 여러분이 증거할 차례입니다'라는 주제로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전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주 치명자성지 평화의 전당 1층 보두네홀에서 열린다.

한편 전시축복미사는 4일 오전 11시 평화의 전당 섬이정원에서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전주교구장) 주례로 진행된다.

김선태 주교는 축사를 통해 "많은 교우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성인 한 분 한 분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며 "순교성인들은 코로나 사태로 몹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어 줄 것이며, 이 시기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일러주고 동반해 줄 것이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공연장 특화 감염병 대응 안내서 개발

문체부, 현장·전문가 자문 등 거쳐 공연장 특성 고려 현장 중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대표적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를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년 8개월간 공연장 내에서 배우-관객 간, 관객 간 코로나19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연장은 비교적 감염병에 안전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연 현장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센터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틀 안에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연장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안내서를 개발했다.

이번 안내서는 중대형 공연장 편과 소형 공연장 편으로 구분했으며 ▲위키경보 단계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공연장의 조치사항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 및 참고자료 등을 수록했다.

공연장의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주요점을 두고 공연장 특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모델을 제시했다. 각 공연장에서는 위험도 평가 모델을 활용해 공연장의 공간적 특성, 대관단체의 특성, 관람 특성 등 여러 측면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응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안내서를 각급 공연장에 배포하고,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영국, 일본 등 공연장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1 공연 안전 국제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안내서 개발 성과 등을 국제적으로도 공유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문체부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전북문화관광재단 최초 전시지원 프로젝트 황인혜 첫 개인전 'HHH전'

황인혜 작가가 1일~12일까지 '복숭아'를 주제로 첫 개인전인 'HHH전'을 전북예술회관 지하 1층 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최초 전시지원 프로젝트다.

황 작가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지금의 순간들을 위해 붓을 잡고 내 시간에 다 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작품관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작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로 생명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스치듯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복숭아와 관련된 전통적 의미는

'장수'와 '복사'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무병장수와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의미의 소재로 사용됐다. 귀중한 과일로 오랜 시간 문화적 의미를 쌓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건강과 마음의 여유와 풍요가 다시금 되돌아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시에 대한 문의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063-230-7428)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